

제 7 편 안 정 기
이성희 목사 시대 (1990~현재)



이성희 목사

예언적·영성적 목회자로 부상 교회와 교인에게 비전 심어줘



가족사진 (↑ 위임식 때 - 1991 ↓ 두 외손자까지 - 2004)



1990년 연동교회에 부임하고 이듬해 위임목사가 된 이성희牧사는 1948년 2월 2일 경북 칠곡군 장천면 옥계교회 사택에서 성서학자인 이상근 목사와 설귀연 사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북사대 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 신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풀러신학대학원과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및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부터 2년간 서울영락교회 전도사·행정목사(1988~1990 재임), 1981년 도미해 1985년부터 3년간 미국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목회경력을 쌓았다.

이성희 목사는 부임 직후 교회의 조직개편과 제도개혁에 착수하고 교인의 영적성장을 목표로 성서주의적 목회구상을 펼쳐 나갔다. 목회 2기인 새천년에 들어서 미래 목회자로 각광을 받아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올해의 인물' 10명 중 1위로 뽑혔으며 영성 목회자로도 부상했다. 영성훈련 '아가피아'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우간다에 이어 사할린연동교회



위임식을 마치고 - 1991

및 태백연동교회 설립에 기여했다. 교회적으로는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의 설치와 연동복지문화관의 건립을 이끌었으며 교회창립 100주년에 이어 110주년을 맞이한 2004년 부활절을 기해 교회와 교인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디지털시대 디지털 목회의 선두에 선 이성희 목사는 항상 다독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의 지혜를 모았으며 1년에 평균 1권 이상의 책자를 저술해 오고 있다. 밖으로 외향선교회 한나선교회와 한민족복지재단, 그리고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및 미국 풀리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있으며 월드컨선 공동회장과 한국교회 미래목회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김봉희 사모와의 슬하에 1녀 1남.



현지인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인도) - 1994



기독실업인 하계대회 설교(국내) - 1995



중미 선교사들에게 말씀의 향연(코스타리카) - 1996



연동교회가 지원한 기재와 의료진(북한) - 2000



보름스 종교 개혁자상 앞에 선 내외(독일) - 2000



한민족복지재단 대표단의 봉수교회 방문기념(평양) - 2000



저서(1992-2004)

제직 연수회 · 간친회

연수회(수련회) : 특강 · 기도회 · 간친회
웃놀이 : 친하게 사귀는 간친회의 절정



제직연수회와 성찬식을 마치고 - 1990



'이렇게 섬김시다' 주제로 제직연수회를 마치고 - 1995

1990년 3월 1일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본당에서 3백여명의 제직이 모여 제직연수회를 개최했다. 강사는 제주성안교회 정영택 목사였다. (사진: 상) 1995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1박2일간 광성교회(경기도 가평)에서 제직연수회를 개최했다. 참가인원은 201명. (사진: 중) 아래 두 사진은 1998년 1월 21~23일과 2003년 1월 15~17일 3일간씩 열린 제직수련회 기간 중의 웃놀이. 1998년 행운상은 신동란 집사, 2003년 우승은 한기석 · 김금숙 집사조가 차지했다.



↑ 1998 - 제직수련회 둘째날의 간친회 - 2003 ↑

장학금

교회 지급 연동장학금 유지 지급 개별장학금



1990년 9월 18일 친교실에서 장학위원회 위원장 장우림 장로가 장학생을 모아놓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 격려하는 장면.(사진: 상) 김상용 목사의 말씀과 편정희 권사의 축사에 이어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연동장학금 장명수(신학생) 외 25명, 운암순원장학금 조영진 1명, 세종장학금 박우형 외 3명, 정운수장학금 김지리(사진 속 사진: 수여자는 편정희 권사) 1명이었다.



1998년 3월 1일 205호실에서 제1학기 장학생 32명에게 총 1천 5백95만원을 지급했다.(수여자: 이선인 집사) 1968년에 장학위원회를 조직하고 197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교인의 기념 개별장학금은 다음과 같다.(연도는 발족년도)
△세명장학금(78) △운암순원장학금(81) △함병춘장학금(83) △희연장학금(83) △세종장학금(86) △정운수편정희장학금(86) △원정장학금(90) △김영순장학금(91) △유민화장학금(97) △선유장학금(97) △동해장학금(01) △하양장학금(02)



2004년 6월 13일 3부예배 중에 윤선향·김성태 성도가 헌납하는 거액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윤선향 성도(91세)는 개인 목사 때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했고 김성태 성도(95세)는 산유화·동심초 등 수많은 가곡을 작곡, 그들 슬하에 장남인 김기호 장로 등 2남4녀를 두고 있다. 개별장학금인 윤선향 김성태장학금은 2005년부터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전도부 · 여전도회 지원교회

1996년의 경우 총 50개처 지원 농어촌 개척 · 미자립 교회 우선

연동교회는 매년 농촌 미자립교회와 선교기관에 지원의 손길을 뻗었다. 1992년의 경우 전도부 29교회와 6선교기관, 제1-2남선교회 4교회, 제1-3여전도회 9교회, 청년선교회 4교회, 총 50개처였다. 1996년도 지원교회는 전도부 15교회, 제1-6남선교회 6교회, 제1-6여전도회 9교회, 제1-2청년선교회 2교회였다. 아

래 사진 한울교회와 옥천제일교회는 전도위원회(전도부), 그 외는 여전도회 지원교회로서 한울교회에 전도위원장 장은환 장로(중앙), 연동산업부 출신 장성국 목사가 시무하는 옥천제일교회에 전도부장 이은성 장로(오른쪽 세번째)가 앞장 섰다. 그리고 어디에나 김신덕 전도사가 한결같이 동행했다.



경남 산천 반천교회 - 1991



서울 영등포 한울교회 - 1991



충남 온양 농아교회 - 1992



강원 삼척 마음교회 - 1998



충남 옥천 구일교회 - 2001



경북 울릉도 옥천제일교회(↓: 장성국 목사) - 2004

장로 장립(1)

상 : 방정현 · 이봉순 장로	1991
중 : 최문규 · 김종문 · 홍승록 장로	1992
하 : 이정기 · 차규장 장로	1994



① 방정현 장로 ② 이봉순 장로



① 홍승록 장로 ② 김종문 장로 ③ 최문규 장로



① 차규장 장로 ② 이정기 장로

성전 꽃꽂이

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 신령한 예배의식과 조화 이루는 꽃꽂이

구약시대부터 회막과 제사장 의상 등에 색깔이 있었고 중세에 이르러 성전에 꽃꽂이가 등장했으며 오늘에 이르러 교회력에 따라 예복·드림천 등이 색깔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사순절·부활절·강림절·감사절·대강절·성탄절 절기마다 그에 다른 색깔의 꽃으로 신앙과 예술을 조화시켜 미화반(장식반)원들이 강단을 장식하고 있다. 장장 20여년간 연동교회 강단에 꽃을 꽂은 허문정 권사는 1981년 한국기독교꽃꽂이선교회, 1982년 송백꽃예술중앙회 회장 및 이사장, 한국꽃예술작가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1992년 '교회절기꽃꽂이'(4·6배판 290쪽)를 출간하며 성전 꽃꽂이에 이바지했다.



강림절 - 1991



성탄절 - 1996



사순절 - 1998



어느 주일 - 2000



부활절 - 2001



미화반원들 - 1999



미화반원들 - 2000